
대만의 경제발전 모델

- 한국경제와 비교 -

2005. 11

국민경제자문회의

목 차

I. 서 론	1
II. 대만의 경제발전 모델	2
III. 최근의 대만 경제현황	4
IV. 대만의 경제 · 사회적 위기 요인	6
V. 대만의 미래 성장전략	8
VI. 한국과 대만의 미래 경쟁력 비교	10

I. 서론

- 대만은 지난 50년간 정부개입에 의한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통해 한강의 기적과 비견되는 고도성장을 달성하여 '절망의 섬(Island of Despair)'에서 '번영의 섬(Island of Prosperity)'으로 이행하였음
 - 또한 최근 대만경제는 실업률의 증가, 총투자의 부진 등에 따른 전반적인 성장동력의 저하와 反獨・贊獨의 갈등 등 사회적 갈등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한국과 유사함
- 그러나 대기업 위주의 성장우선정책을 추진한 한국과 달리 대만은 안정과 복지를 중시하는 경제발전 전략과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유지하여 왔으며,
 - 한국에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재벌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, 분배와 고용의 양극화는 큰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짐
- 이 글에서는 대만의 경제발전전략과 경제현황, 그리고 대만경제의 위기요인 및 향후 성장전략을 살펴보고, 대만경제와 한국경제의 미래 경쟁력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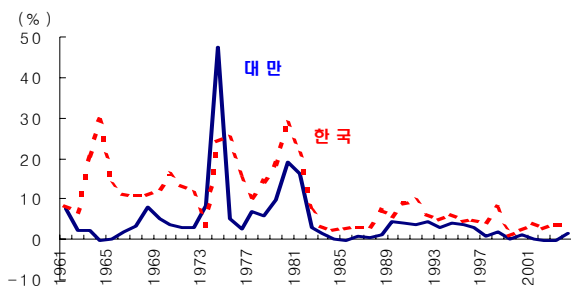
	한국과의 유사성	한국과의 차별성
경제발전 모 델	- 정부주도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	- 안정과 복지를 중시 - 중소기업 위주의 성장전략
최근의 경제상황	- 경제 성장률의 둔화 - 투자 증가율의 둔화	- 실업률이 큰 폭으로 증가
경제・사회적 위기요인	- 산업구조의 공동화 - 중국경제에 대한 과다 의존	- 反獨・贊獨의 갈등 존재 - 양극화 문제는 거의 없음
미래의 성장전략	- 비즈니스 허브화 전략 - 산업구조의 고도화	- Green Silicon Island 전략
미래의 경쟁력 비교	- 현재의 국가경쟁력, 중소기업 경쟁력, 경제의 안정성은 대만이 우월 - 그러나 미래의 예상 경제성장률, R&D투자규모, 대기업 경쟁력, 경제의 역동성 등 면에서 한국이 우월함	

II. 대만의 경제발전모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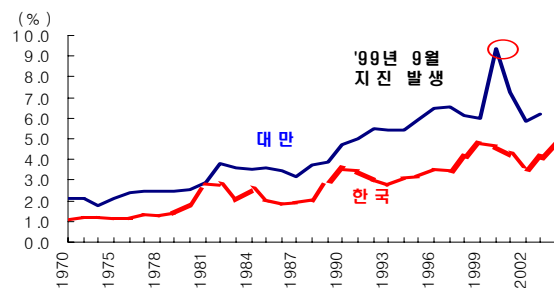
□ 안정과 복지를 중시하는 경제개발정책 추진

- 성장우선정책을 추진한 한국과 달리 대만은 孫文(쑨원)의 민생주의 사상에 근거하여 안정과 복지를 중시하는 경제개발정책을 추진
 - '70년대 두 차례의 오일쇼크 기간을 제외하고 대만의 물가수준은 한국에 비해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으며,
 - 대만의 사회보장지출 비중이 한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

한국 및 대만의 소비자 물가상승률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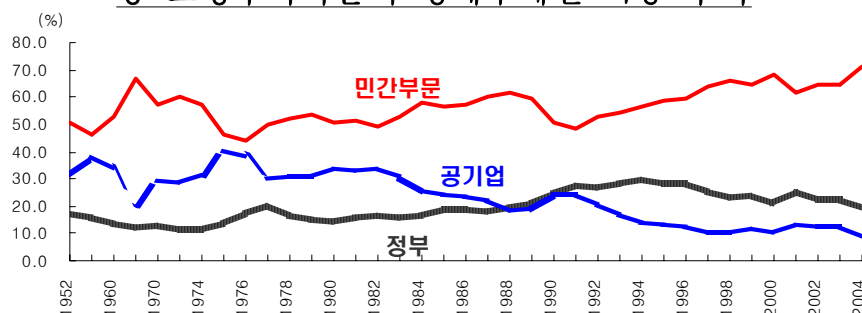
한국 및 대만의 GDP대비 사회보장지출 비중 추이



□ 중소기업 위주의 수출주도형 성장전략

- 대만은 경제발전 초기에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국유기업의 비중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였으며, 한국과 같은 적극적인 민간 대기업 육성정책은 실시하지 않음
- 국민당 정부는 원주민에 대한 포섭정책의 일환으로 자유로운 기업 창업을 허용하는 한편, 수출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중소기업 위주의 수출주도형 경제구조가 형성됨
- 경제발전 후기에는 국유 대기업의 민영화와 중소기업의 성장에 따라 대기업의 비중이 증가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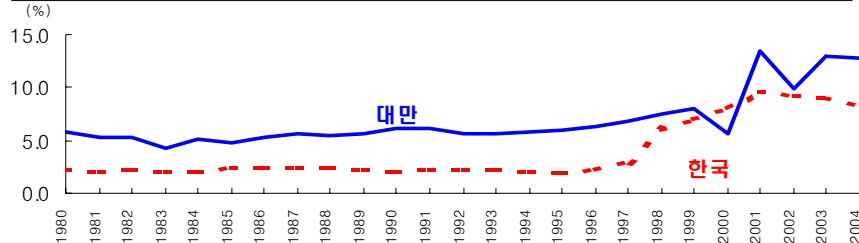
총 고정투자자본의 경제주체별 비중 추이



□ 외국인 투자의 적극적 유치

- 대만은 경제발전 초기부터 경제발전을 위한 자금조달과 고위험 사업분야에 대한 진출을 위해 외국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
 - 특히 '00년에는 정보통신산업의 개방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크게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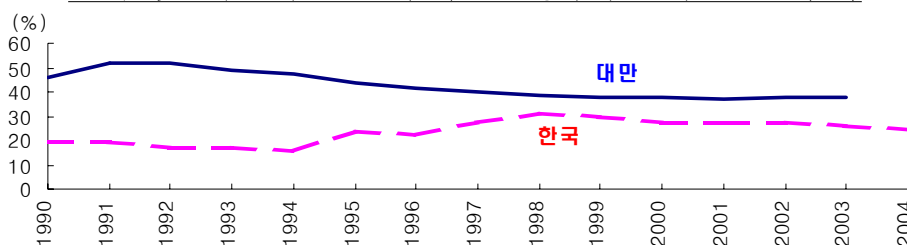
한국 및 대만의 GDP대비 외국인투자주식의 비중 추이



□ 정부주도에 의한 연구개발(R&D) 투자

- 대만은 대기업의 발전이 지체되고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분산형 시장 구조가 형성됨에 따라 기술혁신영역에서 시장실패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았음
- 이에 따라 대만 정부는 R&D투자에 대한 지원, 상업적 기술의 주도적 개발 등에서 한국, 일본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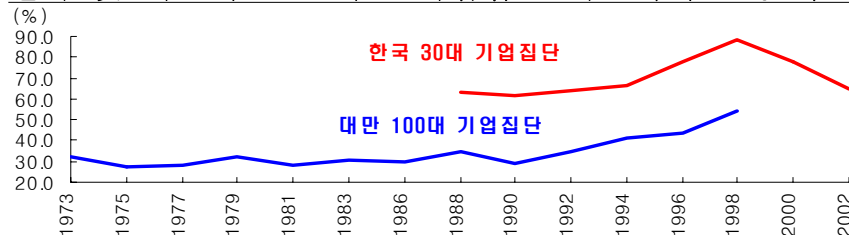
한국 및 대만의 R&D투자 중 정부부문의 비중 추이



□ 1990년대 이후 대기업이 성장하고 기업집단의 비중이 증가

- 대만에서는 기업집단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지체되었으나, '80년대 중반 이후 전기·전자 및 IT산업의 발전과 함께 대기업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국민경제에서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

한국 및 대만의 GDP대비 기업집단 매출액의 비중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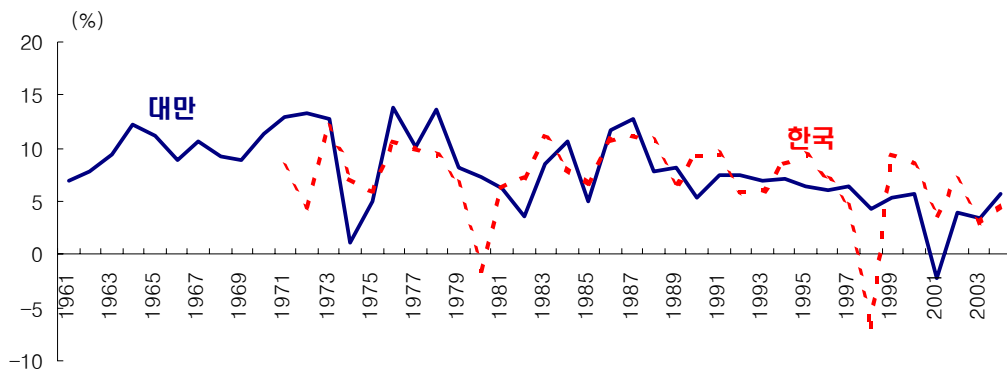


III. 최근의 대만 경제현황

□ '90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추세

- 대만 경제는 '53~'00년 중 연평균 8.1%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 왔으나, '90년대 이후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추세임
- 특히 '01년에는 국내정치경제 불안 및 세계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건국 이래 최초의 마이너스 경제성장(-2.2%)을 기록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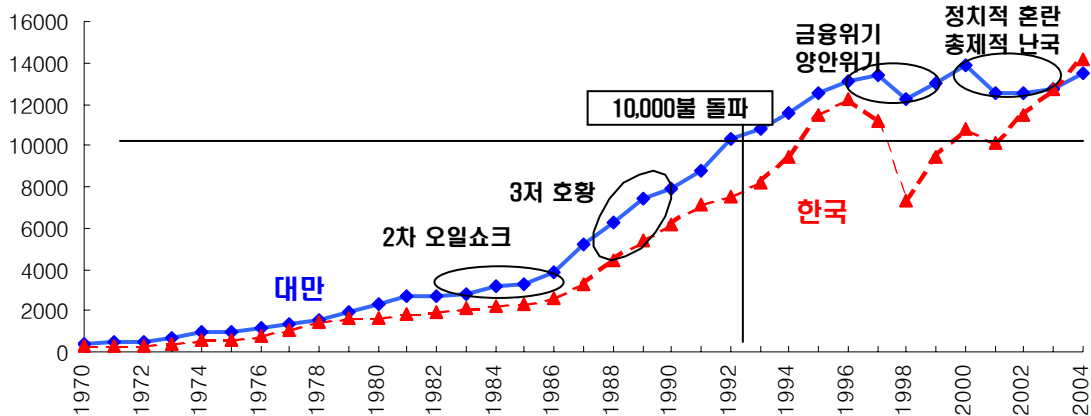
대만과 한국의 경제성장률 추이



□ 1만 달러 돌파 이후 13,000달러 수준에서 성장이 정체된 상태

- 대만의 1인당 GDP는 '92년에 10,000달러를 돌파하고 '96년에 13,000달러에 도달하였으나, 이후 12,000~13,000달러 수준에서 정체
- 경제성장률의 하락 및 대만화폐의 평가절하('98년)에 따른 것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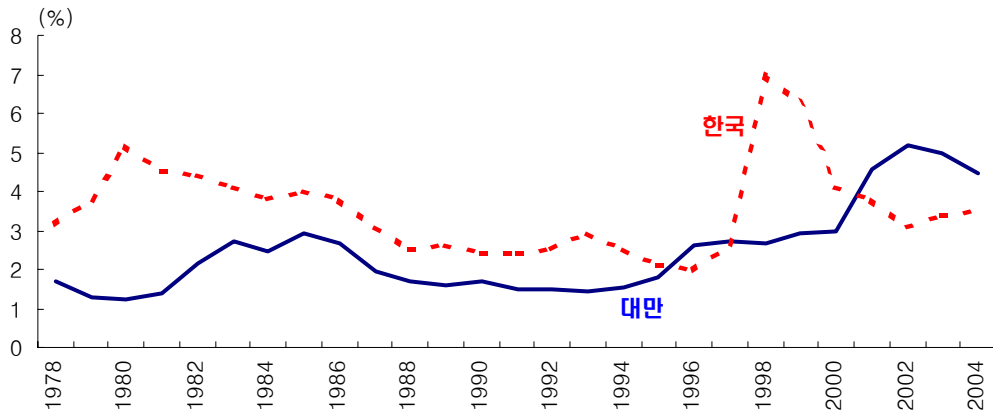
대만과 한국의 1인당 소득추이(경상환율기준, US \$)



□ 최근 실업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

- 대만은 경제발전과정에서 한국보다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여 왔으나, 생산기지의 중국이전, 경제성장률의 둔화, 제조업체 투자부진 등으로 최근 실업률이 크게 증가하였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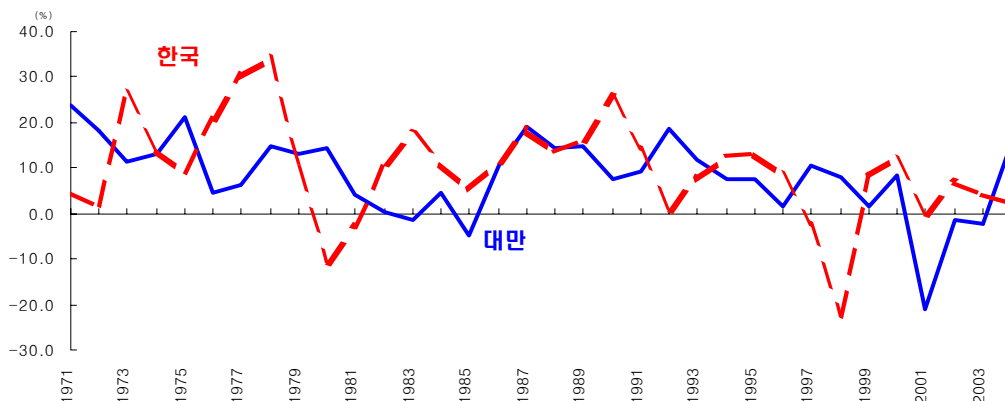
한국 및 대만의 실업률 추이



□ 총투자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

- 대만은 경제개발이 시작된 이후 '80년대 전반을 제외하고는 연간 10% 이상의 높은 총투자(설비투자+건설투자) 증가율을 유지하여 왔으나,
- '90년대 중반 이후 국내외 정치경제의 불안(양안위기·동아시아 경제위기), 대외투자의 증가 등으로 총투자의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있는 추세임

한국 및 대만의 총투자(설비투자+건설투자) 증가율 추이



IV. 대만의 경제·사회적 위기 요인

경제적 위기 요인

□ 과도한 중국투자에 따른 산업공동화의 진행

- '90년대 이후 대만 기업(특히 노동집약 경공업)은 생산기지의 중국 이전을 가속화하고 있음
 - 대만의 경제규모는 일본의 7%에 불과하지만 대만의 對중국 투자 규모('02년 말까지 누계 332억 달러)는 일본과 비슷한 수준임
- 이에 따라 '92~'04년 기간 중 대만의 경공업 생산은 20% 가까이 감소하는 등 산업의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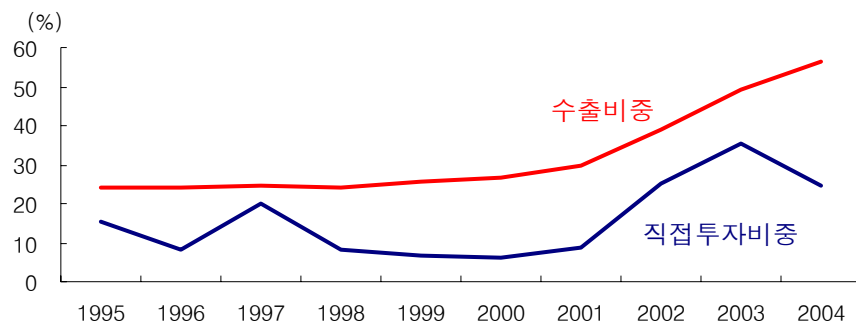
대만의 경/중공업 생산 추이(2001년 = 100)

	1992	1994	1996	1998	2000	2002	2004
중공업	56.9	66.1	75.5	88.4	108.6	113.6	140.9
경공업	119.9	116.4	112.7	109.3	110.5	97.5	99.4

□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의 심화

- '04년에 대만의 수출에서 對중국(홍콩 포함)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6.2% 수준이며, 대만의 해외투자에서 對중국 투자(홍콩포함)가 차지하는 비중은 24.7% 수준임
- 이에 따라 대만에서는 대만경제가 중국경제의 변방으로 전락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

중국에 대한 수출 및 해외투자의 비중



정치·사회적 갈등 요인

□ 정치적 리더십의 약화와 贊獨・反獨의 갈등

- 과거 국민당 정부는 중국 위협과 본토수복 논리로 국민들의 불만을 누르고 경제성장을 주도하였으나, '00.5월 집권한 민진당 정부는 다원화된 욕구와 상황변화로 정치·경제적 리더십 약화
- 대만 독립을 당현으로 하는 민진당의 집권 이후 대만 독립 문제에 대해 贊獨과 反獨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으며,
 - '대만파'와 '본토파' 간의 출신갈등, 그리고 북부와 남부 간의 지역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음

□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문제는 크지 않음

- 기업집단의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국민일반 및 정책당국자는 대만이 여전히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라고 인식하고 있으며,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에 대하여 크게 우려하지 않음 (대만 대표부 관계자와의 면담 결과)

□ 분배의 양극화 문제는 크지 않음

- 대만은 최근의 성장률 둔화 및 실업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물가의 안정과 잘 정비된 복지제도로 인하여 분배의 양극화 문제는 큰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부각되지 않음 (대만 대표부 관계자와의 면담 결과)

□ 노사관계는 비교적 안정적임

- 대만은 가족기업이 상당수인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수평적인 상하관계의 전통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음
- '90년대 후반 이후 민주화 진전에 따른 욕구분출, 성장둔화, 대규모 구조조정 등으로 노사분규가 급증하였으나 대만의 노사관계는 경쟁국들에 비하면 여전히 안정적임
 - 노사쟁의 참가자 수는 '96~'02년 중 연평균 64,000명 정도이며, 이는 같은 기간 중 쟁의업체 전체 종업원의 10% 수준에 불과함

V. 대만의 미래 성장전략

Green Silicon Island 전략

* 대만을 첨단기술 및 지식산업의 중심지로 바꾸기 위한 국가적 전략

□ 6개년 국가발전계획(Challenge 2008) 수립

- 대만 정부는 경제불안 타개책의 일환으로 2002년 「Challenge 2008」이라는 6개년 국가발전계획을 수립함
- 동 계획은 대만을 'Green Silicon Island'로 전환하기 위해 총 2.6조 대만달러(미화750억달러)를 투자할 계획이며, 그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음
 - 최소 15개 이상 세계제일의 상품과 기술을 개발
 - 대만을 방문하는 외국 여행자 수를 2배로 증가
 - R&D투자를 GDP의 3%로 확대
 - 경제성장률을 5% 이상으로 증대
 - 70만개의 일자리 창출, 실업률을 4% 이하로 감축
 - 인터넷 이용자를 6백만명 이상으로 증가

□ 과학산업단지의 조성 확대

-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방안으로 기존의 신주(新竹)단지에 추가하여 추난(竹南), 통루오 등 새로운 과학산업단지의 조성을 추진 중
 - 신주단지는 대만 정부의 20여년에 걸친 투자와 육성으로 컴퓨터, 통신기기 등 첨단산업의 세계적 메카로 부상하였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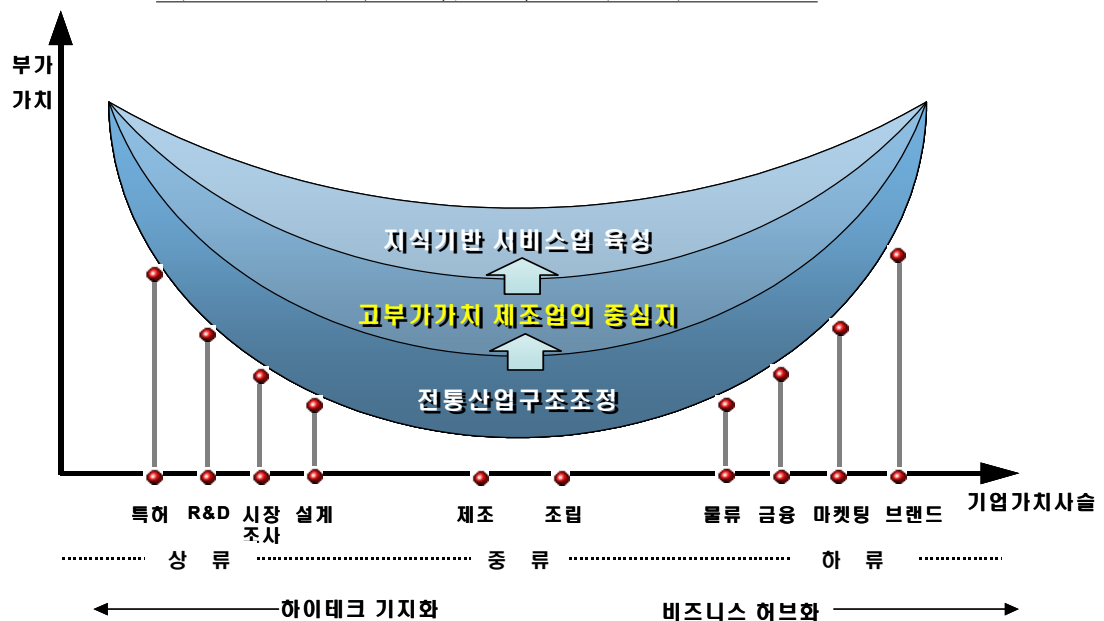
대만의 과학산업단지 현황

단지명	개발시기(계획)	주요 산업부문
신주단지	'79~'97	- 컴퓨터와 주변기기, 통신기기, 집적회로 등
추난단지	'99~'05	- 생명공학 분야에 특화 전망
통루오단지	'04~'11	- 광전자공학, 전자통신, 극소 전자기계

중국과의 분업전략 : 미소곡선 모델

- 대만은 제조업의 對중국 투자급증에 따른 산업공동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의 제조업 분업모델로서 '미소곡선(smile curve)' 모델을 제시
 - 기업의 가치사슬에서 중류의 저부가가치 부문인 조립·가공은 중국에 이전하고
 - 특허·R&D·설계 등 상류(upstream)와 금융·마케팅·브랜드 등 하류(downstream)의 고부가가치 부문은 대만에서 담당하는 전략
- 미소곡선 모델에 의한 대만·중국의 분업구조를 통해
 - 중국은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한 세계적인 제조업 생산기지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고
 - 대만은 자본·기술·인력을 활용한 하이테크 기지 및 동아시아 비즈니스허브로 발전하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음

대만·중국의 분업전략 : 미소곡선 모델



VI. 한국과 대만의 미래 경쟁력 비교

□ IMD의 국가경쟁력은 대만이 높음

- 대만은 국가경쟁력 및 부문별 경쟁력 순위가 모두 한국보다 높음
- 다만, 미래의 성장동력 결정에 중요한 요소인 발전인프라 부문의 순위 차이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

IMD의 한국과 대만의 국가경쟁력 비교(2005년도)

(단위 : 순위)

	국가경쟁력	부문별 경쟁력			
		경제운영성과	정부행정효율	기업경영효율	발전인프라
대 만	11	18	19	6	18
한 국	29	43	31	30	23

□ 미래의 예상 경제성장률은 한국이 높음

- 대만은 산업구조의 공동화, 투자축소 등 전반적인 성장동력의 감소로 인해 미래의 경제성장률이 3~4%대에 머무를 전망
- 한국의 경우에도 경제성장률의 둔화가 예상되고 있으나, 대만 보다는 다소 높은 5%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

한국과 대만의 예상 경제성장률 비교

(단위 : %)

	2005	2006	2007	2008	2009	'10~'25 평균
대 만	3.5	3.3	3.9	4.3	4.7	3.5
한 국	3.7	6.0	5.6	5.2	5.8	3.3

자료 : Global Insight Quarterly Review and Outlook, 2005년 3/4분기

□ R&D투자 규모는 한국이 높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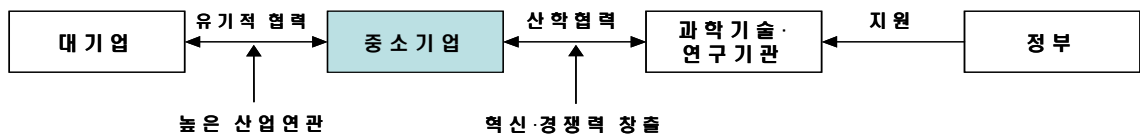
- 대만이 첨단기술 및 지식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매우 중요시 하고 있는 R&D 투자규모는 한국이 대만보다 높음
 - 총 R&D투자규모는 한국이 대만의 2.3배 수준
- 다만, 대만이 R&D투자의 GDP대비 비중을 '06년까지 3% 수준으로 확대할 경우 양국의 차이는 상당 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

한국과 대만의 R&D 투자규모 비교(2003년 현재)

	총투자 규모(백만달러)	1인당 투자규모(달러)	GDP대비 비중(%)
대 만	6,997	303	2.45
한 국	16,011	334	2.64

□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대만이 높음

- 대만의 중소기업은 과학기술연구소와 긴밀한 연계를 맺고 있으며, 이를 통한 기술개발과 혁신은 경쟁력 창출의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음
- 또한 대기업-중소기업 간 유기적 협력관계는 산업연관을 제고하고 수출증가가 내수확대로 이어지는 파급효과를 증대함



- 반면, 한국의 중소기업은 혁신능력의 부족으로 경쟁력 창출의 주역으로 등장하지 못하고 있으며,
- 전반적인 산업연관의 취약으로 대기업의 발전이 중소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양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음

□ 대기업의 경쟁력은 한국이 높음

- 반도체, 항공우주, 생명공학 등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산업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를 감행할 수 있는 대기업의 존재가 필수적임
- 한국의 GDP규모는 대만의 2.2배 수준이나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세계 유명 대기업의 수는 대만보다 5.5배가 많음

한국과 대만의 GDP규모 및 세계 500대 기업 수 비교(2004년 현재)

	GDP 규모(억달러)	세계 500대 기업 수
대 만	3,054	2개
한 국	6,799	11개

□ 대만경제의 안정성과 한국경제의 역동성

- 대만은 反獨·贊獨의 갈등, 출신갈등, 지역갈등 등 사회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으나, 조만간 이를 극복하고 안정과 복지를 중시하는 사회통합적 성장전략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
- 한국은 양극화와 지역갈등 등 다양한 사회적 갈등요인이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나, 성장과 복지를 희구하는 국민적 열망과 잠재되어 있는 과감한 혁신 및 투자능력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임